謹賀
白龍城 法師壽辰

甲子重回六一今
始知活佛慧功深
玩鶴應性閒聽偈
種松聊□老年林
毫光滿帶來生福
腦海常莊普濟心
壽星奎彩同輝地
讀罷金經復浪吟

갑자년이 다시 되돌아와서 오늘 61세가 되시니
이제야 활불의 밝은 공이 깊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학을 사랑하고 본성에 응하여 한가로이 게송을 읊으면서
소나무종자를 심어 寺林에서 노년을 즐기려 하시는도다。
백호의 광명을 가득히 비추어 내생의 복을 펴도다。
마음가운데에는 항상 중생을 제도할 마음으로 장엄하시니
노인수성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여 세상이 함께 밝으며
부처님의 경전을 느른하게 다시 읽는 물결로 읊으옵니다。

酒隱 崔斗榮
내은 최두영

謹和
白龍城 法師壽韻

佛指中道將到今
六旬修鍊六根深
茶初月滿充江水
偈凌雲橫古澗林
木鐸聲名提醒世
香煙功德積無心
衆生擺待慈航渡
只祝返壽爲一吟

부처님의 중도의 가리키심이 장차 오늘에 이르러서
육순까지 수련하여 六根이 깊으셨도다。
찻잔에 달이 가득차고 강물이 흐르는데
게송을 읊는 소리와 달리는 구름이 수림에 가득하도다。
목탁소리가 세상을 일깨워주고
향연의 공덕이 무심하여
중생을 기다리고 열어서 자비의 반야 용선으로 제도하소서。
오로지 회갑을 맞이하여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林觀 韓渭東
임관 한위동

謹賀
白龍城禪師 壽辰

先天甲子又奉今
已濟圓功修鍊深
道氣莊龍傳寶鉢
經聲引鶴出眞林
叢風慧月三生觀
流水閒雲萬境心
節盡業累眞活佛
輪珠唱偈後長吟

선천의 갑자년 다시 만난 오늘
수련의 공덕이 깊어 원만히 제도해 마치었도다。
장용의 도기에게 보발을 전하고
경 읽는 소리로 학을 이끌어 진림을 나오게 하여
총림의 풍조 혜월로 삼생을 관할지어다。
흐르는 물과 한가로운 구름은 만 가지 사정의 마음이로다
누겁의 업이 알맞게 다하면 진실한 활불이로다。
염주를 굴리며 게송을 읊은 후 길게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石農 李星會
석농 이성회

祝 축
龍城禪師 壽朝
용성선사 수조

聞說三藏子 문설삼장자
現生六十今 현생육십금
云木風霜古 운목풍상고
江河歲月深 강하세월심
渺渺前神佛 묘묘전신불
重重此度心 중중차도심
憶曾燕獄里 억증연옥리
誰談有期吟 수담유기음

듣자하니 삼장의 존자께서
현생에서 지금 60이 되었다 하시네.
운목이 겪은 풍상이 오래 되었고
강물을 따라 세월의 흔적이 깊구나.
아득한 전신의 신령스러운 부처님이셨기에
중중무진한 이 중생을 제도하시나이다.
일찍이 감옥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누가 앞날을 기약할 수 있으리오. 수연시를 읊습니다.

春菴
춘암

謹賀 근하
白龍城 禪師 壽辰
백용성 선사 수신

前身是佛復生今 전신시불부생금
因果由來道力深 인과유래도력심
水月精神依錫杖 수월정신의석장
雲霞蹤迹托珠林 운하종적탁주림
出家常有慈悲念 출가상유자비념
悅世豈無忠義心 열세기무충의심
俗壽重回新甲子 속수중회신갑자
祝辭咸口一高吟 축사함구일고음

전신이 부처님이셨으며 지금 다시 환생하셨는데
인과의 유래를 보면 도력이 깊음을 알 수 있도다.
운수행각 수월의 정신으로 주장자 석장에 의지하고
구름과 노을의 종적을 따라 총림에 의탁하도다.
출가를 하여 항상 자비심이 있어
세상을 즐기어 어찌 충의로운 마음이 없겠는가?
속세의 생일이 다시 돌아와 새로운 갑자년이 되니
함구하고 축사하며 하나로 높이 읊으옵니다.

素巖 呂炳鉉
소암 여병현

謹次 근차
白龍城堂禪師 長筵韻
백용성당선사 장연운

無來君逢又至今 무래군봉우지금
解脫吾師道自深 해탈오사도자심
坐處蓮花非寶榻 좌처연화비보탑
眼前殘樓是叢林 안전잔루시총림
闔扉四載經壽劫 합비사재경수겁
譯會三藏現佛心 역회삼장현불심
只爲化身住于世 지위화신주우세
衆生遍作睡筵吟 중생편작수연음

오시지 않으신 존자님을 오늘에 이르러 다시 뵈오니
해탈을 하신 우리 스님께서 그 도가 자연 깊으시어라.
좌선하시는 처소가 연화보좌의 자리가 아니라
눈앞의 낡은 건물이 이 총림이시라네.
대문을 돌려 닫아걸고 번역에 열중하신 4년을 지나서 회갑을
한문경전 한글번역 삼장역회로 불심이 나타나시도다.
오로지 현재의 육신보살 화신으로 주석하시옵기를
중생들이 두루 수연시를 지어서 읊고 있나이다.

偶丁林圭
우정림규

祝 축
白先生壽朝
백선생수조

舊日復今 구일부금
年高海深 년고해심
志在上乘 지재상승
身應小林 신응소림
苦海多惱 고해다뇌
福望勞心 복망노심
深玆美辰 심자미신
□□衷一吟 □□충일음

옛날부터 다시 오늘에 이르러
연세는 높아지는데 깊은 바다와 같이
포부는 뛰어나시도다。
몸은 작은 절에 거처하시네。
번뇌가 많은 생사고해 중생을 보고
복덕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며 노심초사 하시네。
이에 생신을 맞이하여 맥문동을 넣어 깊게
속마음으로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羅龍煥
나용환

祝 축
龍城禪師壽朝
용성선사수조

西囚一別到如今 서수일별도여금
忽見招呼感激深 홀견초호감격심
自愧田家無學圃 자괴전가무학포
□知城市有禪林 □지성시유선림
吾生六十本來夢 오생육십본래몽
此日重逢何管心 차일중봉하관심
雲山萬里難爲意 운산만리난위의
只倚業欄聊一吟 지의업란료일음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되었을 때 헤어져 오늘에 이르렀는데
홀연히 초청하여 불러주시니 깊이 감격하였습니다。
농사꾼이라 배운 것이 없는 게 너무 부끄러워
도성 시가지에 선림 사원이 있음을 누가 알았으리오。
우리의 인생에서 육십이란 본래 꿈과 같거늘
오늘 다시 만나니 마음을 어떻게 주관하리이까?
운산 만리 내 뜻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총림의 난간에 기대어 축하시를 읊을 뿐입니다。

羅仁協
나인협

敬祝 경축
龍城堂 大禪師 壽宴
용성당대선사수연

普門舊宿老如今 보문구수노여금
永峙翔雲花木深 영치상운화목심
覺岸松風鳴寶鐸 각안송풍명보탁
給園香樹攢珠林 급원향수찬주림
禪燈已懺貝書影 선등이참패서영
滌月常印菩提心 척월상인보리심
三世此身無住處 삼세차신무주처
往來不與俗人吟 왕래불여속인음

보문의 옛 별자리가 오늘에 이르니
긴 언덕길에 상서로운 구름이 떠있고 꽃과 나무가 우거졌네。
깨침의 언덕에 소나무 바람소리 보배로운 목탁이 울리고
급고독원 향기와 기타태자의 수림에 보배 구슬이 모이고
참선하여 전등하면서 참회를 하고 경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니
밝은 달은 항상 보리심을 인하는구나。
과거·현재·미래의 이 몸은 무주처이지만
왕래를 하면서도 속세의 사람과 더불어 읊지 않음입니다。

惺菴 崔潤錫 謹稿
성암 최윤석·근고

謹賀 白禪師 龍城堂 壽朝
근하 백선사 용성당 수조

大師花甲再回今 善得人因緣果深
대사화갑재회금 선득인인연과심

報無仁風曾鐵固 福節海月晩博林
보무인풍증철고 복공해월만박림

爲通六澨□禪界 手澤三藩溫佛心
위통육천□선계 수택삼번구불심

遙祝現世無量壽 恁將批韻一高吟
요축현세무량수 임장비운일고음

대사의 회갑이 오늘 다시 돌아오니
사람이 인연과 가 깊어서 선우를 얻어
인자한 훈풍이 없더라면 일찍이 철창에 영어의 몸으로 보주하
죽장의 복으로 해월이 사림에 저녁을 밝게 하도다。
중생을 육바라밀로 귀기울이게 하여 쏟아져 흐르도록 하여 선계를
삼계에 떨어짐을 불심으로 축이어 윤택하게 잡으십니다。
멀리 현세의 무량수를 축하하여
운을 살려 높게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沃坡 李鍾一
옥파 이종일

晬筵祝詩
수연축시

尊師出世兮 甲子復回今
존사출세혜 갑자부회금

此地煙霞蒲 諸天花雨深
차지연하포 제천화우심

四香定德性 三界說明心
사향정덕성 삼계설명심

晬席崗俊祝 詩歌并偈吟
수석강준축 시가병게음

존사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갑자년이 다시 돌아온 오늘
모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 울창하구나。
이 땅에 저녁노을이 낀 부들 숲에
계향·정향·혜향·해탈향으로 덕성을 정하니
욕계·색계·무색계가 명심을 설함이로다。
잔치 자리에서 거문고로 축하를 하니
시와 노래와 게송을 함께 읊는구나。

青仲夏日 俗生 李丙薰 謹稿
청중하일 소생 이병훈 근고

謹次 白龍城 禪師 壽宴 韻
근차 백용성 선사 수연 운

髣靈剃染到于今 鏡裏霜侵兩鬢深
초령체염도우금 경리상침양빈심

法海神龍飜杳□ 非但耆英皆欲頌
법해신용번묘□ 비단기영개욕송

罵兒燕子亦忝吟 律門猛虎入禪林
매아연자역참음 율문맹호입선림

昏衢自闢人天眼 覺苑重明佛祖心
혼구자벽인천안 각원중명불조심

영명하게도 검은 다박머리 깎고 출가한 후 오늘에 이르니
거울 속의 귀밑머리 서리가 깊게 앉았구나。
불교 법해에 신룡이 아득히 곧게 가며 번득이시니
율문에서 맹호가 선림에 들으셨도다。
혼미한 거리에서 사람과 하늘의 눈이 저절로 열려
불타 조사의 마음을 거듭 밝혀 깨침의 큰바람 불리우시니
비단 영명한 노승들만이 다 칭송할 뿐만 아니라
꾀꼬리와 제비역시 참례하여 축하시를 읊고 있구나。

全南 順天郡 曹溪山 仙巖寺 金擎雲
전남 순천군 조계산 선암사 김경운

祝賀 축하

白龍城 백용성 大禪師 대선사 晬宴 수연

人間六十至於今 인간육십지어금
慶祝盛筵快樂深 경축성연쾌악심
珠賣街頭弥劣鋪 주매가두미렬포
貴收芳菓樗成林 귀수방과저성림
攪河製□威神力 교하제□위신력
覺法契眞況蒼心 각법계진황창심
獻壽三山不老咒 헌수삼산불로주
超關那畔更那吟 초관나반갱나음

인간 세상에서 60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생신을 경축하는 연회자리에서 즐거움이 깊습니다。
거리에서 보배구슬을 파는 오래된 초라한 점포에는
귀하게 거둔 향기 나는 과일과 쓸모 없는 가죽나무가 사림을 이루었구
뒤섞어서 범벅이 되었으니 어찌 위신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요。
진실로 깨침의 법으로 합하였는데 하물며 창생을 제도할 마음이야
삼신산의 늙지 않는 주 다라니를 수연으로 드리오니
나반존자의 관문을 초월하여 다시 나반의 수연시를 읊습니다。

甲子 端陽* 갑자 단양
단양은 음력으로 5월 8일을 칭함. 단오는 음력으로 5월5일인데 3일 넘었기에(越三天)
李晦光 이회광

敬賀 경하

龍城法師晬宴 용성법사수연

人言甲子復回今 인언갑자부회금
手植青松歲月深 수식청송세월심
恩報劬懇經作塔 은보구간경작탑
緣深春惧錫歸林 연심춘구석귀림
十方偏照非□氣 시방변조비□기
四大原空見佛心 사대원공견불심
競渡戲過三晝永 경도희과삼주영
賀詩聊代偈辭吟 하시료대게시음

사람들은 오늘 다시 갑자 회갑이 되돌아 왔다고 하는데
손으로 심은 푸른 소나무가 세월의 오래됨을 연원하고 있도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간절히 경과 탑을 조성하시더니
세월 흐름에 두려운 인연이 깊어 총림으로 돌아가 주석하시려 하는도
외로운 기운이 아닌 시방에 두루 비친
지·수·화·풍 4대가 원래 공한 불심을 보시리로다。
경쟁하듯 희롱하듯 사흘을 지나도록 읊조리어
원컨대 축하시로 게송을 대신하여 읊어 드리나이다。

甲子 五月 七日 呑虛 李容求 謹稿 갑자 오월 칠일 탄허 이용구 근고

祝 축

龍城大禪師壽宴 용성대선사수연

多生修得現如今 다생수득현여금
濟世杞憂老益深 제세기우노익심
貝葉飜經開肉眼 패엽번경개육안
雨花論法역雲林 우화론법역운림
霞觴細鑲丹砂氣 하상세양단사기
槐日爭明白髮心 괴일쟁명백발심
彩眼趨應由來得 채안추응유래득
藝香壇萬壽詩吟 예향단만수시음

많은 생을 닦아 얻어서 현재 이제와 같아 옵니다。
세상을 구제함에 어찌 노사의 근심이 더욱 깊지 않으오리까?
패엽 불경을 번역하여 육안에서 혜안을 열게 하고
꽃비가 내리는데 법을 논담하니 운수의 사림이 빛나시도다。
신선들이 마시는 술잔에 세세히 박은 단사의 기운 같고
해가 밝기를 다투어 회초리를 든 백발 노인의 마음이시니
마땅히 재촉하여 빛나는 안목을 어서 와서 행하여 얻을지어다。
예향이 나는 단 위에서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시를 읊으옵니다。

弟子 甲子五月八日 金鏡峰 焚香 제자 갑자오월팔일 김경봉 분향

謹賀 鳳翼洞 賢宗 壽筵

靈誕重回上甲今 榴花時節雨花深
千春桃結原因果 萬丈松高手種林
慧眼已空三界相 慈航一繫六洲心
願將功德添沙篆 永世衆生口口吟

영단중회상갑금 유화시절우화심
천춘도결원인과 만장송고수종림
혜안이공삼계상 자항일계육주심
원장공덕첨사산 영세중생구구음

영명스러운 탄생일이 다시 돌아와 갑자년이 되었으니
석류나무 꽃이 피는 시절 우화가 깊었나이다。
천년의 봄을 지나 도원 결의의 인과에 근원은
만길이나 되는 소나무 높은 절개를 손안에 품음이라
혜안으로 삼계의 모습이 공함을 꿰뚫고
자비의 항선으로 6대주 중생의 마음을 한결같이 매달리게 하시는구나
공덕을 일일이 헤아려 불문에 붙이기를 바라면서
세세대대로 중생의 입으로 입으로 하여금 읊조리길 바라나이다。

宗人 冀洙 謹稿

종인 기수 근고

謹賀 鳳翼洞 賢宗大人華甲

賓今節甲筵今 芙溢霞觴祝意深
不是寓蹤遊紫陌 元來養性學緇林
迷津普施傳經力 苦海恒存渡筏心
曉契更敦花樹誼 擬辭盈案一長吟

빈금절갑연금 부일하상축의심
불시우종유자맥 원래양성학치림
미진보시전경력 고해항존도법심
효계경돈화수의 의하사영안일장음

5월 이제 갑자년이 되돌아와서 생일연을 드리우고 있는데
맥문동으로 빚은 술이 잔을 넘쳐 축하의 뜻이 깊어지고 있도다。
도성에서 붙여 살면서 벗 사귀어 유랑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나
원래 총림에서 교학을 닦으면서 진실 본성을 양성하여
迷津중생에게 경력을 널리 전하여 베풀어서
고해 중생을 항상 건네주려는 마음이 있으시므로
만나 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원 백씨효문중 화수의 돈독한 교분으로
축복의 글을 초안하여 충분히 긴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又

우

覽揆重回甲筵今
남규중회갑연금

賓朋回座咒觥深
빈붕회좌시굉심

超生莫若求禪道
초생막약구선도

眞理何曾比藝林
진리하증비예림

影逐慈雲飛法界
영축자운비법계

光留慧月照空心
광류혜월조공심

欣然此日爲君壽
흔연차일위군수

南極恒沙祝以吟
남극항사축이음

헤아려보니 갑자년 회갑에 오늘 생신상을 보게 되니
벗들이 두루 앉아 술잔을 깊이 비우고 있네.
생사를 뛰어넘으려고 참선의 도를 구하지 말지어다.
진리가 어찌 거듭 예림에 비교하겠는가.
그림자를 뒤쫓아 자운이 법계로 날아가니
혜월이 머물러 빛나는 공심을 비추는도다.
흔연히 이날은 존자를 위해 축하하는 바이니
수명장수 무한하도록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宗人 樂韶 拜稿
종인 낙소 배고

謹步壽席原韻
근보수석원운

六一晬辰又到今
육일수신우도금

極星呈彩梵宮深
극성정채범궁심

甲花香伴榴花藥
갑화향반류화예

銕棟春盆法樹林
철동춘분법수림

初來西域金精髮
초래서역금정발

生老東方太古心
생로동방태고심

錦袈錫杖桑弦席
금가석장상황석

白首上人風月吟
백수상인풍월음

육십 하나의 생신이 오늘 다시 돌아오니
북극성이 범궁에 깊은 궁전을 비추어 빛내고
회갑의 향기가 꽃술과 동반하니
철주의 봄이 넘친 법 수림이
서역에서 오신 보리달마 존자님의 머리로부터
동방에서 태어나신 보우 태고조사의 마음이 빛나
금란가사에 석장을 짚고 상호에 자리하시니
백수 上人이 풍월을 읊으시도다.

幾生修鍊現身今
기생수련현신금

慧眼東回滄海深
혜안동회창해심

五月花開三寶樹
오월화개삼보수

南風日永衆香林
남풍일영중향림

蚌胎出海千年彩
방태출해천년채

鳳翼冲霄萬古心
봉익충소만고심

無量閣前無量壽
무량각전무량수

一聲筵禮白雲吟
일성연례백운음

몇 번의 생애를 걸쳐 수련해서야 이제의 몸으로 되셨겠는가?
혜안이 동쪽으로 돌아오니 창해가 깊구나.
5월에 삼보수 꽃이 피니
남풍이 날마다 불어 뭇 향기가 수림에 가득하구나.
방합이 바다에 나오니 천년의 빛이 나고
봉황의 날개가 하늘을 찔러 올라가니 고심이 가득하나이다.
무량각 앞에 있으니 무량의 수를 누릴 수 있고
예로써 연회를 베풀어 한 소리로 백운일을 읊으옵니다.

宗人 南老 拜稿
종인 남노 배고

重逢甲子古如今
중봉갑자고여금
花雨諸天春色深
화우제천춘색심
壽祝龜籌添海屋
수축귀주첨해옥
洞菓□翼□雲林
동과익□운림
萬念都空淸淨界
만념도공청정계
一業不染慈悲心
일업불염자비심
獻賀紛紛詩滿軸
헌하분분시만축
老人星下老人吟
노인성하노인음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전에도 지금 같았지만
모든 하늘의 꽃비로 봄기운이 깊어지누나。
회갑날에 거북과 같이 수명장수하시라는 축복이 방안 가득하여
봉익동이 비었지만 운수 납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만념이 모두 비어 청정계가 되어서
티끌하나 묻지 않은 자비심이로다。
축하시를 적은 두루마리들이 잇따르고
장수하는 별인 노인성 아래에서 노인이 읊도다。

家人 南億 謹稿
가인 남억 근고

謹賀三蔵譯會
祝宴詩韻
근하삼장역회
축연시운

靜齋德蔭到于今
정재덕음도우금
飭慶弦蓮感舊深
칙경현연감구심
益壽延年隣海屋
익수연년린해옥
悟空說法坐叢林
오공설법좌총림
一身修煉引仙術
일신수련인선술
三界慈悲養道心
삼계자비양도심
紛紛賀軸沙門下
분분하축사문하
滿座佳賓朗好吟
만좌가빈랑호음

고려충신 정신재 백장선생의 음덕이 오늘에 이르러
활을 지니고 경연에 참가하니 경계하는 마음이 깊이 옛날을 그리게 하는구나。
연년 장수하여 인해의 집에 거처하고
空 도리를 깨쳐 총림에 좌정하여 설법을 하니
일신을 수련하여 선술을 이끌어 내어
삼계에서 자비도심을 양성하도다。
분분하게 축하글을 적은 두루마리가 존자 沙門에 이르니
좌석에 가득한 가인 귀빈 등이 낭랑한 목소리로 읊으옵니다。

宗人 南杓 拜稿
종인 남표 배고

金粟前身復現今
금속전신부현금
一塵不染上房深
일진불염상방심
五月祝宴開鳳洞
오월축연개봉동
三蔵盛會動鷄林
삼장성회동계림
萬事俱空堪白首
만사구공감백수
六旬益壯尙丹心
육순익장상단심
幸隣花樹善提下
행린화수보리하
春蝶曉鴛爲一吟
춘접효앵위일음

유마거사의 전신인 금속여래가 지금 현신한 듯
번뇌 티끌하나 묻지 않은 깊숙한 산방에서
5월의 회갑 축연이 봉익동에서 열리니
삼장성회가 계림 해동 조선을 진동하는구나。
만사가 모두 空인 것을 깨달으시니 연세 드시는 것 역시 즐기시는구나。
육십의 연세지만 건강하시고 일편단심 여전하시도다。
행복하게도 꽃나무와 보리수 아래에서
봄날의 나비와 아침 꾀꼬리가 축하시를 읊는구나。

宗人 南正 拜稿
종인 남정 배고

西天活佛復來今
서천활불부래금
悟得平生道味深
오득평생도미심
片石孤峰開淨土
편석고봉개정토
閑雲流水坐空林
한운류수좌공림
壽加萬萬無疆祝
수가만만무강축
人又三三普濟心
인우삼삼보제심
最好良辰榴夏節
최호량신류하절
更將賀語爲君吟
갱장하어위군음

서천 서역의 활불이 오늘 다시 돌아와서
평생의 도의 맛을 깊이 깨달아 얻으시었도다.
한편의 바위 외로운 봉우리에 정토를 열어두고
공림에 좌선하고 있노라니 구름은 한가로이 떠있고 물은 유유히 흐르는도다.
만수무강하시어 수가 더하시고
사람들은 또한 삼삼은 구(3×3=9) 9계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호시절인 석류나무 꽃이 피는 여름철에
다시 존자님을 위해 축하의 시를 읊어 드리옵나이다.

宗人 麟基 拜稿
종인 인기 배고

甲子重回五月今
갑자중회오월금
坎中連裏道微深
감중연리도미심
初疑名士臨□星
초의명사임□星
更覺上人降祇林
갱각상인강기림
藏跡遠離榮辱世
장적원리영욕세
焚香默坐惠慈心
분향묵좌혜자심
余將何語爲公祝
여장하어위공축
極樂蓮抬送一吟
극락연대송일음

갑자년 5월 회갑의 오늘
물 속에 붙어 있는 가지를 보니 그 속에 숨어있는 道가 미미하게 깊은 듯합니다.
처음에는 名士가 경루에 온 것이 아닌가 의아해 했지만
다시 보니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은
상인 존자가 이 기원정사 숲에 하강한 듯하옵니다.
종적을 감추고 영욕의 속세를 멀리 떠나
향을 사르고 묵묵히 좌선하여 자비심을 베푸시니
제가 어떤 말로 귀공을 위하여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극락의 연화대를 향하여 시 한 수 읊어드리나이다.

宗人 昇基 拜稿
종인 승기 배고

謹賀三蕨譯會 壽宴詩韻
근하삼궐역회 수연시운

舊甲令辰又到今
구갑영신우도금
邀明識喜話情深
요명식희화정심
設席懸弧耀極彩
설석현호요극채
披雲飛錫住檀林
피운비석주단림
六一遐齡幻道骨
육일하령환도골
三千大界養眞心
삼천대계양진심
榴花月上菩提樹
류화월상보리수
黃鳥聲中賀以吟
황조성중하이음

예전의 갑자생신이 오늘 다시 돌아와서
밝은 식견을 가진 분을 초대하여 즐겁게 말을 나누니 그 정 또한 깊으도다.
술상에 안주가 가득하여 극히 아름다운 빛을 내고
구름을 헤치고 주장자를 단림에 주석하신
육십일세의 연세에도 선풍도골의 모습으로
삼천대천 세계에서 진실한 본심을 양성하시는구나.
석류나무 꽃이 피고 보리수에 달이 높았는데
황조의 소리 가운데에서 축하시를 읊습니다.

宗人 性基 謹稿
종인 성기 근고

謹賀 三蔵譯會
근하 삼장역회

壽席韻
수석운

白蓮盛集古猶今
백련성집고유금
現世如來功德深
현세여래공덕심
天風飛錫月明海
천풍비석월명해
時雨撒花春滿林
시우삼화춘만림
三生得鍊金成粟
삼생득련금성속
萬劫無塵鏡掛心
만겁무진경괘심
僞士安知眞劫僞
위사안지진겁계
鶴南權作祝辭吟
학남권작축사음

옛과 같이 존귀한 백련들이 많이 모였으니
현세의 여래에 공덕이 깊어서입니다。
하늘높이 부는 바람아래 석장을 짚고 행각하시니 밝은달이 바다에 비추입니다。
제때에 내리는 비에 꽃이 흩어져 사림에 봄이 충만합니다。
삼생의 수련을 거쳐 금속여래로 성취하사
만겁에 티끌하나 없이 거울 같은 마음이시오니
위선의 선비가 어찌 진실된 게송을 알 수 있으리오!
학남(鄭羽良)의 글을 모방하여 축사를 지어 읊어봅니다。

宗人 樂正 謹稿
종인 낙정 근고

大道神通無古今
대도신통무고금
幾年入定閉門深
기년입정폐문심
燭影花殘明靜境
촉영화잔명정경
磬聲月落散空林
경성월락산공림
法雨慈雲能見性
법우자운능견성
善男信女最關心
선남신녀최관심
顧余猥添同宗誼
고여외첨동종의
爲賀靈辰另一吟
위하령신별일음

대도의 신통함은 고금이 달리 없으니
입정하여 문을 깊이 닫은 지가 몇 해가 되었는가?
촛불 그림자, 시든 꽃 명정의 경지에 이르르니
경쇠소리 들리고 달이 공적한 사림에 걸쳐있구나。
자운의 법우로 능히 견성함이
선남자 선여인에 최상의 관심이나이다。
나의 외람됨이 수원 백씨 종인의 우의를 더하여 돌이켜 보면서
영험한 탄생기념일에 축하시 한 수 읊어 봅니다。

宗人 樂庸 謹稿
종인 낙용 근고

甲子端陽重到今
갑자단양중도금
上人靈誕壽華深
상인령탄수화심
仙花散落三淸界
선화산락삼청계
法雨頻飜七寶林
법우빈번칠보림
杖前鮮虎龍能事
장전해호룡능사
鉢裏生蓮玩杰心
발리생연완걸심
塵臼都將兒戲付
진구도장아희부
空庭閑聽老松吟
공정한청노송음

갑자년 단오가 다시 돌아오니
존자 上人의 영험스러운 탄생일에 축수의 연회가 깊어집니다。
존자가 계시는 삼청계에 신선의 꽃이 흩어져 떨어지고
법우가 빈번하게 칠보사림에 내리니
주장자 앞에서는 호룡의 능사도 판단해 주시고
발우안에 연화가 생함은 걸출한 마음을 익힘이시라。
속세의 허물들은 모두 애들 장난으로 치부해 버리고
사림 공정에서 노송의 바람소리 들으면서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宗人 樂寅 謹稿
종인 낙인 근고

三萬會客卽來今 (삼만회객즉래금)
賀語紛紛誼更深 (하어분분의갱심)
琴邊閑鶴依松蓋 (금변한학의송개)
棋上群仙坐橘林 (기상군선좌귤림)
紅塵不到架裟影 (홍진부도가사영)
皓月長明梵貝心 (호월장명범패심)
況是吾宗遐祝日 (황시오종하축일)
何嫌露拙一聊吟 (하혐로졸일료음)

3만의 손님이 오늘 와 모여서
축하의 말이 이어지고 정의는 더욱 깊어지네。
가야금 옆으로 한가로운 학이 소나무에 덮혀 의지하고
장기판 위의 여러 신선들은 귤림에 앉아있네。
홍진 속세에는 가사(법의)의 그림자가 닿지 않고
달님은 항상 받들어 범패심 밝으시도다。
더군다나 우리 백씨 종인 존자님의 성대한 축하일에
어찌 졸작이라 하여 한 수 읊는 것을 피하오리까?

宗人 樂善 謹稿
종인 낙선 근고

舊甲子年又到今 (구갑자년우도금)
菩提樹下古堂深 (보리수하고당심)
門設蓬弧登壽域 (문설봉호등수역)
道傳衣鉢坐禪林 (도전의발좌선림)
丑月喜廳黃鳥囀 (축월희청황조전)
百年久托白雲心 (백년구탁백운심)
君家餘慶無疆祝 (군가여경무강축)
滿座高朋共一吟 (만좌고붕공일음)

예전의 갑자년이 다시 오늘에 되돌아오니
보리수 아래에 시아본사 불세존의 고당은 감추어졌는데
문 앞에 봉래문을 설치하여 수성에 올라
도의 상징인 가사와 발우를 전하고저 선림에 앉아
해가 다 간 섣달에 황조의 지저귀는 희소식을 듣고저
백년의 오랜 세월 백운에 의탁하셨나이다。
존자님과 승가 문중에 끝까지 경하드리고 만수무강을 축하하면서
만좌의 덕이 높은 벗들이 함께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宗人 南福 謹稿
종인 남복 근고

鶴算龜齡又到今 (학산구령우도금)
年來修鍊道微心 (연래수련도미심)
花叢吉祥連鐵樹 (화총길상연철수)
人閑空寐愛雲林 (인한공매애운림)
身常康健引仙術 (신상강건인선술)
抱音慈悲濟世心 (포음자비제세심)
採採金光技以贈 (채채금광기이증)
爲君祝壽賀詩吟 (위군축수하시음)

학이나 거북이처럼 수를 누려 다시 오늘에 이르니
연내로부터 수련하여 미세하게 마음의 도를 닦으셨고
꽃떨기가 길상스러워 무쇠나무에 연결되었으며
존자님은 한가로이 공삼매에 들고 운수의 사림으로 사랑하셨기에
몸은 항상 건강하여 신선의 술법을 이끌어 내시어
자비심의 법음으로 포용하여서 중생을 제도하시니
금광의 능한 기술로써 가려서 취해 드리면서
존자를 위하여 회갑 축하시를 읊으옵니다。

宗人 泳欽 謹稿
종인 영흠 근고